

내년 예산편성 인터넷설문

대구시민 10명 가운데 6명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재정운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2007년도 예산편성관련 인터넷설문 조사' (5월22일~6월10일, 응답자 264명) 결과 참여자의 59.8%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을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해 조사에서 참여자의 54.2%가 '건전재정이 될 때까지 균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를 보인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건전 재정은 39.8%에 불과했다. 예산편성의 중점 분야로는 '지역 경제'가 23.7%로 가장 높았으며 '과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대구시 재정 확대해야”

시민 59.8% 응답...건전 재정은 39.8%에 불과

학기술' 20.9% 순이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26.3%)와 문화체육(17.4%) 분야가 확대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시개발(22.7%)과, 도로교통(19.1%) 분야는 축소해야 할 분야로 조사됐다.

특히 투자를 늘려야 하는 사업으로 지역 경제분야 가운데서 '해외시장 개척 및 유통산업 발전', '산업용지

공급' 사업이 17%로 나타났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는 IT·BT·NT 등 첨단산업육성 31.2%,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23.5%순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분야 가운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이 19.1%로 투자확대 대상으로 떠오른 반면 대구시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인프라 확충(20.9%)은 투자를 줄여야

하는 사업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 부채가 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재정운용의 확대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응답이 높은 것은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정화기자 moonjh@idaegu.com